

# 김정은 굿즈를 둘러싼 정치학

## -희극적 독재자 김정은 관련 작품의 도상학적 연구-

사이토 호다카 (고베대학)

### 1. 서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북한’이나 그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일 간의 차이와 세대의 차이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도 개개인마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serious함(진지함)’이라는 것이 북한이라는 존재에 동반되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내포하고 있는 ‘진지함’이 오늘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진1]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일본판 구글 사이트에 “김정은 티셔츠”라고 검색을 한 결과를 캡처 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을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희극화 시키면서 키치한(저속한) 티셔츠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이나 김정은을 ‘진지함’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다루는 사회의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sup>1)</sup> 그 예시로 김정은을 장난스럽게 만든 스티커[사진2]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 작품들도 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와 같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는 김정은을 소재로 다루는 현상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sup>2)</sup> 물론 이러한 현상은 문제인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일련의 정상회담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외교 데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바뀌어 김정은에 관한 상품과 작품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 양국 모두에게 ‘북한’이라는 이미지는 단순히 국가 명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특유의 위화감이나 감정, 이른바 ‘진지함’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이 쿠바혁명을 성공시킨 체 게바라를 모티브로 한 티셔츠를 패션의 일부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sup>3)</sup>북한의 지도자를 아이콘으로 희극적으로 소비하는 대중들의 행동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김정은의 상품 및 작품에 대해 다룬 연구<sup>4)</sup>를 확인한 결과, 이는 이때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sup>5)</sup>

1) 「으니굿즈?김정은피규어-시계-초상화까지사고판다」,『조선일보』2018년11월20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0/2018112002255.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0/2018112002255.html)  
(최종확인 2022년 1월 14일)

2) 「한국인의 약 80%가 북한의 김정원 위원장을 신뢰-여론 조사」,『블룸버그』,2018년 5월 2일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18-05-02/P8387I6JTSEY01>  
(최종확인 2022년 1월 14일)

3) 타카야마 요코(高山陽子) 「사회주의 키치와 관광 기념품」, 『아시아 대학 국제 관계 기요』 제24권, 2015년, p.55.

4) 본고에 가까운 연구로 타카야마 요코 「영웅의 표상-중국 열사릉원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14권, p.43-58 및 고산 요코 「여자여행에서 아시아의 표상 - 타이베이 상하이 홍콩의 사례에서」, 『아시아 대학교 국제관계기요』 제27권, 2018년, p.49-74를 들 수 있음.

5) 굿즈 연구로는 한민(韓 敏)의 문화인류학적인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상세 연구로서는 한민 「근대 중국에서의 마오쩌둥 숭배의 성립」, 『국립민족학박물관 조사보고』 127권, 2015년, p.35-60 및 한민 「의례와 상징: 마오쩌둥 탄생 110주년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혁명의 실천과 표상: 현대 중국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풍경사), 2009년, p.367-397 참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과제는 북한의 정치적 역사나 제도가 아닌 풍자적이지만 희극적인 형태로 김정은이라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상품 및 작품에 주목하며 이를 소비하는 대중사회의 배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의 희극화’라는 특이한 현상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고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서, 굿즈나 예술과 같은 작품에서 정치 사회의 내막을 생각하는 새로운 학문적 관점에도 도전하려 합니다.

## 2. 김정은을 모티브로 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실제로 김정은을 모티브로 한 상품과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기의 항목은 대표적인 것을 편의상 3가지로 분류하고 간단한 고찰을 추가한 것입니다.

### 2.1 콜라주 이미지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김정은을 희극적으로 다룬 작품 중 콜라주 이미지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한일 양국 모두 [사진 3]과 같은 콜라주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콜라주 이미지는 불특정 다수의 작성자에 의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 2.2 키치한 장난감

다음은 실제 상품으로 존재했고 유통되고 있는 김정은 관련 상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티셔츠나 스티커, 플라(플라스틱) 모델, 피규어나 종이 크래프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한정되어 있지만 근근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한국의 ArtBox, 일본으로 치면 LOFT와 같은 대형 잡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 2.3 예술작품

김정은은 대중문화의 영역을 넘어 예술의 영역에서도 꽤 좋은 소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안 코넬라(Joan Cornella)의 작품이나 마이클 윈클먼(Michael Winkelmann)(Beeple)의 작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4]의 김정은 작품 "JONG v2.0"은 두 조각으로 분할된 머리, 아래 부분은 무기를 든 로봇으로 표현되어 있어 얼굴 이외에는 거의 김정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술 영역에서는 핵개발 문제나 인권 문제 등 본래 고려되어야 할 북한의 문맥을 일체 무시하고 단지 김정은의 모습을 재미있고 희극적으로, 그리고 그로테스크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 3. 상징적인 김정은 작품에서 보이는 대중사회의 현실

2018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된 김정은을 ‘희극화’시킨 상품 중에는 실제로 판매는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 즉시 회수 처리된 상품,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공항 등의 점포로 유통되어 버린 상품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작품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 3.1 김정은 페이퍼 크래프트 (김정은-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사진 5] 작품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회사인 'EBS 미디어'가 2018년 10월 발매한 “김정은-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김정은의 소개한 모습을 모티브로 한 페이퍼 크래프트입니다.<sup>6)</sup>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제 조립된 김정은의 모습은 평양의 미완성 랜드마크

크인 류경호텔과 함께 사랑스럽고 상냥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한국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즉시 회수, 대표작 사퇴라는 비극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sup>7)</sup>

### 3.2 김정은 피규어 (더 리더쉽 시리즈 슈퍼 김)

두 번째 사례로 [사진 6]의 작품에 주목해 봅시다. 이 작품은 홍콩의 신흥 피규어 제작 그룹으로 소규모로 활동했던 '스팅레이즈 아트 스튜디오(STINGRAYZ Art Studio)'가 2018년 8월경 발매한 '더 리더 섯 시리즈 슈퍼김(THE LEADER SHIT SERIES SUPER KIM)'이라는 김정은의 모습을 한 피규어입니다.<sup>8)</sup> 본 작품의 특징은 미사일을 안은 채 방사선 물질 마크를 달고 있는 미국만화의 히어로같은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섯(Shit)'의 이름처럼 버튼을 누르면 김정은의 사타구니에서 '대변 장난감'이 발사되는 기능입니다.<sup>9)</sup> 본 작품은 본래의 문맥에서 크게 떨어져 김정은과 북한을 극명하게 희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량이지만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본 작품의 디자인만을 모방하여 김정은과 트럼프의 피규어 세트로 생산되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 3.3 두 작품에서 시사되는 것

실제로 제작되어 논란을 빚은 상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두 작품에서 시사되는 것은 김정은에 관한 작품은 재현도가 높고 진지한 이미지로서는 부정되며 대변과 같은 명백히 김정은을 희화화하는 진지하지 않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코믹한 형태라면 어떻게 다뤄도 된다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 4. 결론

본 발표에서는 대중들이 김정은에 대한 다루는 방식을 다양한 작품과 사진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확실해진 것은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대중들에게 희극적인 이미지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나 정치적 표상 같은 '북한식'과 같은 것에는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정치 현상을 진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중들의 움직임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의 사례에서도 수많은 신흥 정당의 불확실한 정보, 직접적인 정치적 과제를 내걸지 않고 당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으면 그만이다'라는 주장이 지지를 받아 확산되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6) 'EBS, 김정은 캐릭터 상품 내놓으며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2018년 11월 26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6/2018112600141.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6/2018112600141.html) (최종확인 2021년 12월 16일).

7) '김정은 미화 퍼즐 논란, EBS 미디어 사장 사퇴', "미디어오늘", 2018년 11월 30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48> (최종확인 2022년 1월 16일).

8) 스팅레이즈 아트 스튜디오(STINGRAYZ Art Studio)는 파이어 루스터 스튜디오(Fire Rooster Studio)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Fire Roster Studio", <https://fireroster.studio> (최종확인 2021년 12월 22일).

9) 또한 옛 회사명을 사용할 때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하와 같다. 파이어 루스터 스튜디오 "Fire Roster Studio Non Stingrayz", <https://www.facebook.com/FireRoosterCollectiblefigure/> ref=page\_internal (최종확인 2021년 12월 22일).

해결이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인金正은의 ‘희극화’는 북한과 한국,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이 나아가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1:“김정은 티셔츠” 검색 결과



사진3:夷隅屋直弼의 콜라주 작품



사진5: 김정은 페이퍼 크래프트



사진2: 김정은 스티커  
(2019년6월 저자 작성)



사진4 : JONG v2.0  
Beeple 작품



사진6 : 김정은 피규어

## 참고문헌

- 高山陽子 (2018) 「英雄の表象 中國の烈士陵园を中心に」 地域研究第14卷.
- 高山陽子 (2018) 「女子旅におけるアジアの表象—台北・上海・香港の事例から」 亞細亞大學國際關係紀要 第27卷
- 高山陽子 (2015) 「社會主義キッチュと観光土産」 亞細亞大學國際關係紀要第24卷.
- 韓敏 (2015) 「近代中國における毛澤東崇拜の成り立ち」 國立民族學博物館調查報告127卷.
- 韓敏 (2009) 「革命の實踐と表象：現代中國への人類學のアプローチ」 風景社.

※Webページ、ニュースサイトについては紙幅の関係上、脚注にのみ列挙する。

(번역책임자:최선진)